하나님 사랑하는 자의 사람 그리움

(사무엘하 9:1~13)

1.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2. 사울의 집에는 종 한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시바라 그를 다윗의 앞으로 부르매 왕이 그에게 말하되 네가 시바냐 하니 이르되 당신의 종이니이다 하니라
3.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4.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하니라
5.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6.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므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아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므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7.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네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네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네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네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8.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오늘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 사랑하는 자의 사람 그리움>이라는 제목의 하나님말씀 증거 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자의 사람 그리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왜 사람을 그리워하느냐는 의문이 생기는 제목입니다.
정 호승 시인의 “꽃이 진다고 그대를 잊은 적 없다”라는 시가 있는데 세월호에서 희생된 안타까운 목숨들에 대한 애절한 마음이 표현된 시입니다. 부분만 읽어보겠습니다.
“꽃이 진다고 그대를 잊은 적 없다 / 별이 진다고 그대를 잊은 적 없다”라고 합니다.
눈에 보이던 꽃은 없어지더라도 그 영상이 마음에 남아있는 것처럼 여전히 마음 안에 살아있다는 것인데 이 시가 그리움에 대한 정의를 명확하게 내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뒷부분에 보면 “그대는 왜 보고 싶을 때, 볼 수 없는 것인지 / 왜 아무리 보고 싶어 해도 볼 수 없는 세계인지 / 그대가 없는 세상에서 / 나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꽃이 진다고 그대를 잊은 적 없다’는 말과 ‘그대는 왜 보고 싶을 때, 볼 수 없는 것인지’를 합치면 그리움이 나타납니다. 마음에서는 살아있는데 내 눈 앞에서는 사라진 존재에 대한 그리움입니다. 마음에는 보이는데 눈에는 보이지 않은 상태가 그리움입니다. 이것은 사람뿐만이 아닌 돈이나 사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에는 돈이 보이는데 눈에는 돈이 보이지 않으면 돈에 대한 그리움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대가 없는 세상에서 / 나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은 ‘그대를 잃어버리면 다 잃은 것이기에 지금 더 잃을 것이 없다’는 말인데 그만큼 소중하고 보고 싶은데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류 시화 시인도 “그대가 곁에 있어도 나는 그대가 그립다”라고 합니다. 사랑은 보고 있어도 보고 싶고 그대가 곁에 있어도 그리운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그리움과 외로움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것은 외로움과 그리움도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성경은 인류최초의 외로움과 그리움에 대한 묘사를 담고 있는데 창2:18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라고 하십니다. 그 결과 남자가 여자를 만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를 한꺼번에 만들지 않으시고 왜 남자를 먼저 만드셨을까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모든 앞의 일들을 다 아시는 분이신데 마치 남자를 지어놓고는 시행착오를 경험하시는 것처럼 남자만을 만들었다가 안 좋았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은 하나님은 인간의 마음속에 외로움과 그리움을 창조하시는 과정입니다.
성경은 명시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리움이나 외로움을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진 않지만 이 본문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시는 과정에서 인간을 만드시고 그러한 감정도 만들어 내셨음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피조물로서의 외로움과 그리움은 어떠한 것일까요?
먼저 남자를 만드신 것이 외로움을 만들어 내신 것인데 이 외로움이 여자를 만드심으로 극복이 됩니다. 여기서 남자와 여자가 만나는 방식이 류 시화 시인의 시에서처럼 ‘그대가 내 곁에 있어도 그대가 그립다’라는 만남은 아닙니다. 두 사람이 만나는 것이 아니라 두 관계의 만남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직접 만나면 류 시화 시인이 말하는 그리움이 그들의 관계에서도 통하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만들어 내신 그리움은 두 관계가 만나는 그리움입니다.
아담은 혼자 만들어져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었고,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외로움을 창조하셨습니다. 외로움을 극복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담의 갈비뼈로 하와를 만드셨고 하와와 하나님의 관계가 성립되게 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만날 때에는 그 두 사람이

당사자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아담, 하나님과 하와 두 관계가 만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두 관계의 만남 속에서 그리움과 외로움은 어떻게 성립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담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것은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었고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마음이 그로 인해 만족과 행복과 기쁨을 얻을 수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신이시고 나는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적인 차원에서의 그리움과 외로움이 생깁니다. 이러한 감정은 나를 사랑해줄 수 있는 사람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하나님께 두고 있으면 마음을 하나님께 두고 있는 또 다른 사람을 만나고 싶어 하는데 이것이 성경이 본래 인간을 창조하신 그리움에 대해 묘사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좋아하여 마음을 보내고 다른 사람도 하나님을 좋아하여 그렇게 할 때에 그 두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만날 때에 외로움이 극복됩니다. 이러한 외로움의 극복을 위하여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있는 자를 그리워하는 것인데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타락 이전의 그리움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에 농구를 좋아했습니다. 집 근처 가까운 학교에 가면 농구코트가 있어서 오후에 혼자 농구공을 가지고 가서 골대에 던졌습니다. 한 열 댓 번 던지고 나서 학교 정문을 바라보며 누가 안 오나 살펴봅니다. 해가 지도록 골대를 향해서 공을 수십 번 수백 번 던지며 기다리면 가끔 누군가 올 때가 있는데 얼마나 반가운지 모릅니다. 저녁 무렵이 되어서 해가 질 때까지 사람을 기다리는 외로움은 특정한 사람에 대한 사랑이 아닌, 그 농구장에 마음을 두고 있는 사람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농구장으로 보내진 마음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을 만나고 싶어 하는 외로움과 그리움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외로움과 그리움인 것입니다.
교회는 엄격하게 말하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의 모임입니다. 하나님 동호회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그리움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내 마음이 머무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 마음을 드린 사람을 하나님에게서 만나고 싶어 하는 감정이 그리움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과 어떤 관련이 있기에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일까요?
1절에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라고 하여 요나단의 아들이자 사울 왕의 손자인 므비보셋을 찾게 됩니다. 순전히 정치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다윗의 행동이 훌륭합니다. 새로운 왕조가 시작될 때에 제일 먼저 척결해야 되는 대상은 옛 왕조에 속한 왕가의 사람들입니다. 이전 왕조와의 모든 연관성을 뿌리째 뽑아버리는 것이 정치판의 상식입니다. 특히 이전 왕이었던 사울이 다윗에게 못할 짓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도 요나단을 보아서 그 후손을 거둔 것은 다윗이 칭찬 받아야 할 것입니다. 므비보셋은 그 사회에서 떨어질 대로 떨어진 패배자였고 신체상

의 장애도 가지고 있는 처량한 사람이었고 그가 지내던 '로드발'이라는 지역은 '황무지'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서 척박한 지역에서 은둔 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다윗을 만났을 때에도 8절에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라고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겸양의 표현이 아닌 정말로 그의 처지가 죽은 개 같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를 거두어서 왕자들과 똑같이 다윗 왕의 상에서 식사하도록 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다윗이 가진 요나단에 대한 우정과 다윗이 어려울 때에 요나단이 베풀었던 사랑에 대한 보답을 한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런 식으로 이해하는 것은 성경의 의도를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런 의도가 전부였다면 사울과 세 아들들이 죽었을 때에 이미 그 자녀들을 찾아서 돌보았을 것입니다. 다윗의 형편이 어려워서 그렇게 하지 못했을지라도 통일 왕국의 왕이 된 직후에라도 찾았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승승장구 만사형통이 이루어진 후에 찾게 된 여기에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독특한 의도가 숨어있습니다.
바로 앞장 마지막 절에 보면 다윗이 행정 관료들을 뽑아 자신의 조직을 완비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나라를 함께 이끌어갈 신하들을 뽑은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마치 이제야 다윗의 마음에서 요나단이 갑자기 생각난 것처럼 이야기가 나오는데 요나단에 대한 그리움입니다. 요나단에 대한 의리와 그 은혜에 보답하려는 마음이 있었을 것이고 요나단과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을 것이지만 가장 우선적인 것은 그리움이었습니다. 함께 일할 사람들을 뽑았고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셔서 온 나라에는 평강이 가득한 이 시점에서 다윗의 마음에는 요나단에 대한 그리움이 생겨나는데 그 그리움의 본질이 무엇일까요?

다윗이 왕이 될 사람으로 사무엘에게 기름부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이 친해질 수 있었던 이유는 마음을 하나님께 두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요나단은 이 세상의 상식으로 왕위를 차지해야 될 사람이었으나 마음을 왕위에 두지 않고 하나님께 두었습니다. 이 둘이 만난 것은 인간 대 인간으로 만난 것이 아니라 서로의 마음이 하나님께 가 있어서 두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만나게 된 것인데 이것이 이들의 우정의 본질입니다. 마치 서울에 있는 남자와 제주도에 있는 여자가 애인으로 서로 전화를 받고 통화를 하는데 달이 떴습니다. '달 보고 있어? / 응, 달보고 있어'라고 서로의 마음이 달에 가서 만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에게서 만났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어 내각을 구성했는데 그 누구를 보아도 자기처럼 하나님께 마음을 둔 사람이 없습니다. 다윗은 왕위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더 좋아하는데 관료가 된 사람들을 보니 그 자리에 신경을 쓰며 그 자리를 차지했다고 좋아하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좋아하는 하나님을 마찬가지로 좋아하는 그 사람을 그리워하게 된 것입니다.
아담이 자신이 관계 맺고 좋아하는 그 하나님을 같이 좋아할 사람에 대한 그리움이 있었던 것

과 마찬가지로 다윗도 이러한 그리움에 사무쳤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단을 생각하여 그 자녀인 므비보셋을 찾아 왕자들의 자리에 같이 앉게 하였던 것입니다. 그를 보면서 함께 하나님을 좋아했던 요나단을 추억하는 것입니다. 이 그리움이 선민들이 세상과 수평적으로 움직이며 가질 수 있는 유일한 그리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최고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만 있으면 돈이나 건강이 부족하고 자식이 못났을지라도 벼슬이 없을지라도 만족할 수 있고 마음이 따라가지 못할지언정 입으로라도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이 땅을 향한 그리움이 있다면 내가 이렇게 믿는 하나님을 나보다 더 강하게 믿는 사람에 대한 그리움일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을 만나도 다들 하나님의 힘으로 세상일을 잘 해보겠다고 할 뿐입니다. 어디에도 자기 목숨보다 하나님을 더 좋아하는 사람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마음이 하나님께 가 있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보내는 것은 십자가 생활화를 통해 가능합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좋아하려고 할 때마다 십자가에서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을 하나님께로 몰아가는 것이 십자가 생활화인 것입니다. 이렇게 십자가 생활화를 통하여 하나님께로 마음이 갔을 때에 마찬가지로 온통 마음이 하나님께로 간 사람을 만나면 그것이 그리움이고 사랑이고 성도간의 교제가 이루어집니다. 내가 좋아하는 하나님에 대해 나처럼 마음을 둔 사람에 대한 그리움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본래의 그리움입니다. 타락한 세상에서 선민만이 가질 수 있는 그리움입니다. 이 그리움으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숨어있는 선민들을 한 사람씩이라도 찾아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하나님께서 에덴에서 창조하신 그리움이 타락으로 인해서 사라졌으나 십자가 생활화를 통하여 회복되고, 그 그리움으로 허락하신 나의 귀한 형제자매를 만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